

기후 · 환경 변화가 이주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

장영욱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장
yojang@kiep.go.kr

송지혜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분석팀 전문연구원
jhsong@kiep.go.kr

김제국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
jegook@kiep.go.kr

정민지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전문연구원
mjjeong@kiep.go.kr

이승호 전북대학교 스페인 · 중남미학과 교수
seungholee@jbnu.ac.kr



차 례

1. 연구의 배경 및 목적
2. 조사 및 분석 결과
3. 정책 제언

주요 내용

- ▶ 본 연구는 환경이주의 지역별 현황을 고찰하고, 이로 인한 노동시장 구조 변화 여부를 파악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.
 - 기후변화는 해수면 상승, 가뭄, 홍수, 농업생산량 저하, 분쟁 촉발 등에 영향을 미쳐 향후 수십 년간 대륙 내외 대륙 간 이주 패턴에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큼.
 -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환경이주는 이민 송출국과 유입국의 사회, 노동 및 산업구조 변화를 야기하므로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함.
- ▶ 양국간 이주자료를 활용해 송출국의 소득수준별로 환경이주 양상을 분석한 결과, 저소득국에서는 소득 감소로 인한 이주 저해효과가 있으며 중저소득 국가와 중고소득 국가에서만 환경변화가 이민 유출로 이어짐을 확인함.
 - 환경이주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중소득국에 우리나라로 오는 주요 이민 송출국이 다수 포함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함.
 - 한국은 소득수준이 높고 기후조건이 양호하여 향후 주요 이주 목적지가 될 가능성이 높음.
- ▶ 본 보고서는 이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,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관련 국제협력 및 개발협력 강화, 외국인력 유입 수요 예측 및 수용전략 제고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함.
 - 환경 요인으로 인해 이주한 이주민들의 안전한 정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, 소득불균형, 분쟁, 재난, 기후변화 등 송출국의 이주 송출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개발협력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.
 - 향후 기후변화가 가속될 경우 한국이 주요 이주 목적지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외국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선제적인 예측과 이에 따른 수용전략을 정교화해나가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함.

1. 연구의 배경 및 목적

● 본 연구는 이주의 요인 중 하나로서 기후·환경 변화에 주목함.

- 전통적으로 지진, 해일, 화산폭발,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는 일시적·영구적 인구이동의 주요한 원인으로 제시됨.
- 기후변화는 해수면 상승, 가뭄, 홍수, 농업생산량 저하, 분쟁 촉발, 전염병 창궐 등에 영향을 미치며, 이에 따라 향후 수십 년간 대륙 내와 대륙 간 이주 패턴에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큼.
 - 기후변화는 직접적으로 생활수준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생산수단의 물량, 생산성, 가격 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국내외 이주 유인을 제공

●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환경이주¹⁾는 이민 송출국과 유입국의 사회, 노동 및 산업구조 변화를 야기함.

- 일반적인 노동이민은 유입국의 임금, 고용률, 생산 비용, 상품 가격, 경기변동 등에 다각도의 영향을 미치며, 이주 노동력 공급 및 임금 변화는 산업구조 재편에도 영향을 미침.
 - 기후변화는 농업 등 특정 산업의 이주민을 양산하기 때문에 해당 산업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크게 관찰될 수 있음.

●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환경이주의 지역별 현황을 고찰하고 이로 인한 노동시장 구조 변화 여부를 파악하는 것임.

- 현재 한국은 환경이주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 않으나 향후 중요한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초연구가 필요함.
- 기후변화로 인한 이주가 진행 중인 중남미, 아프리카, 동남아의 이주 양상을 조사함.
 - 한국 내 이주민의 출신국가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동남아시아, 남아시아의 일부 국가는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성 및 거주지 변동에 영향을 받고 있음.
 - 중남미발 북미행 환경이주 및 북아프리카발 유럽행 환경이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함.
- 문헌고찰 및 통계분석을 통해 환경이주가 수용국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함.

1) 환경이주는 본인의 삶 및 생활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변 환경의 갑작스러운 또는 점진적인 변화로 인해 거주지를 떠나기를 강요받거나 스스로 이주를 선택한 개인 또는 단체의 이동을 의미함. IOM(2019), "Glossary on Migration" 저자 번역.

2. 조사 및 분석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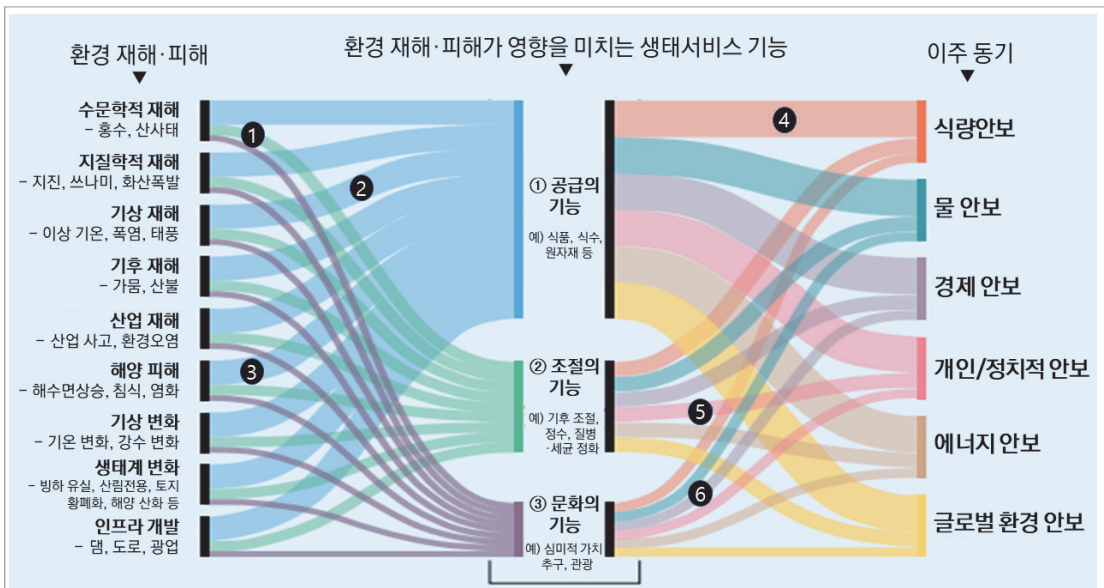
1) 환경이주 발생 원인 및 지역별 현황

① 환경이주의 발생 원인

- 이주를 유발하는 기후·환경 요인은 기상이변 및 재난(extreme events 또는 sudden-onset disasters)부터 점진적 기후변화(slow onset events)까지 다양한 범위를 포괄함(그림 1 참고).

- 기상이변 및 재난은 즉각적인 이재이주의 원인이 됨.
 - 태풍과 홍수, 이로 인한 산사태 등은 연간 약 1천만 명 이상의 이재이주민을 발생시킴.
 - 이상고온 현상은 가뭄과 산불의 직접적 원인이 되어 농업생산성과 식량안보, 생물다양성을 위협하고 온열질환과 노동생산성 저하를 가져와 이주를 유발함.
 - 지진과 화산폭발 역시 다수 인원의 즉각적인 이주를 유발하는 환경 요인으로 작용함.
- 점진적 기후변화는 장기적이고 영구적인 이주를 유발할 가능성이 큼.
 - 해수면 상승, 기온 상승, 해양 산성화, 빙하 후퇴, (토양)염류화, 토지·산림 황폐화, 생물다양성 손실, 사막화 등이 환경이주의 원인으로 제시됨.

그림 1. 환경변화가 이주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



자료: IOM(2022), "World Migration Report - Chapter 9. Migration and the slow-onset impacts of climate change: Taking stock and taking action," p. 3.

- 기후·환경 요인은 해당 지역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분쟁, 보건 문제 등을 악화하거나 이들을 상호 결합시켜 갈등과 위험을 야기하고 지역 거주민이 이주를 결정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함.

- 예를 들어 300만 명 이상의 난민을 발생시킨 수단 내전의 경우,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량 변동과 가뭄, 그리고 제한된 식량 자원을 둘러싼 북부 이슬람계 인구와 남부 비이슬람계 인구의 갈등으로 촉발되었음.

② 중미 4개국 환경이주 현황

- 중미의 멕시코, 과테말라, 엘살바도르, 온두라스에서는 평균 기온 상승, 강수량 변동성 증가, 자연재해 사상자 증가 등이 관찰되어, 이주의 원인이 되는 기후현상 및 자연재해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.

- 4개국 모두에서 연평균 기온과 연평균 최고기온 상승 추세가 뚜렷하게 관측되었으며, 연평균 강수량의 변동성이 상당히 컸음.
- 또한 멕시코를 제외하면 연평균 강수량이 감소하고 우기에 비가 오는 일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.
- 기후변화와 관련이 높은 홍수, 폭풍,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가 최근 더 높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으며, 자연재해로 인한 사상자와 피해자 수가 최근 눈에 띄게 증가함.

- 중남미 4개국에서 기후·환경 변화는 농업생산성 감소를 야기하며 이주 흐름에 영향을 미침.

- 폭풍과 같은 자연재해의 강도·빈도 증가와 강우 패턴의 변화는 농업생산성을 감소시키며 국내외 이주의 원인이 됨.
- 자연재해와 강우 패턴 변화로 촉발된 농업생산성 감소는 특히 자급자족 소농과 계절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악화시켜 최후의 기후변화 적응 기제로서 이주를 선택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임.

③ 북아프리카 4개국 환경이주 현황

- 북아프리카의 모로코, 세네갈, 나이지리아, 소말리아에서 역시 전반적으로 기온이 상승하고 강수량은 감소했으며,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며 국내외 이주를 발생시킴.

- 통계자료에 따르면 모로코, 세네갈, 나이지리아에서는 홍수·폭풍·지진으로 인한 국내이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, 소말리아의 경우 가뭄이 대규모 국내이주를 발생시킨 것이 확인됨.
- 가뭄이 모로코, 세네갈, 나이지리아인들의 이주에 미치는 영향은 개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와 현지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음.
 - 농업 의존도가 높고 가뭄의 영향을 크게 받을수록 본인이나 가족구성원의 이주를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방식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.
 - 모로코 현지조사에서도 상당수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이민자들이 모로코로 이주하게 된 계기에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증언함.

● 소득 및 식민 경험에 따라 국가별 환경이주 패턴에 차이가 발생하였음.

- 모로코와 세네갈의 경우 프랑스, 스페인, 이탈리아로의 이주가 많고, 나이지리아에서는 미국으로의 이주가 활발하며, 소말리아는 주변 아프리카 국가로의 이주가 많았음.
- 국가별 이주 패턴의 차이는 국가 소득수준별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줌.
 - 소득수준이 높은 모로코는 대부분 고소득국, 특히 유럽 국가로 이주했으나, 최빈국인 소말리아의 경우 저소득국으로의 이주 비중이 높았음.
 - 모로코 이주민의 경우 환경적 요인으로 이주를 결심했을 때 식민모국이었던 프랑스를 포함해 다양한 유럽 국가로의 이주를 고려할 수 있음.
 - 소말리아의 경우 자연재해나 다른 환경변화가 발생했을 때 거주지를 떠나더라도 국내로 이동하거나 주변 저소득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음.

④ 동남아시아 4개국 환경이주 현황

● 국가별 특성에 차이는 있지만, 동남아의 필리핀, 인도네시아, 베트남, 태국에서도 기후변화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이주 발생이 관찰됨.

- 필리핀에서 기온 상승폭 및 강수량 증가가 가장 크고 폭풍, 홍수 등 자연재해가 가장 빈번하며 해외이주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.
- 인도네시아는 자연재해 중 홍수, 지진이 빈번하여 이에 따른 인명피해 및 경제적 피해가 큰 편이었으며, 홍수, 지진에 따른 이주가 큰 규모로 나타남.
- 태국의 경우 열대-몬순 기후 지역에 속해 홍수, 폭풍 발생이 빈번했으나 그 정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었음.
 - 다만 2010~11년 연이어 발생한 홍수가 수도인 방콕과 인근 산업단지를 강타했는데, 그 결과 250만 명 이상의 국내이주자가 발생함.

● 통계분석 외에도 추가적인 사례조사를 통해 4개국에서 환경이주가 빈번하게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음.

-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따라 농어업 수입이 감소하여 도시로 이주하면서 전혀 새로운 분야에 종사하며 영구 정착하는 사례가 있음.
- 베트남 메콩델타 지역의 경우, 경제적 요인 외에도 침수·침식에 따라 지반이 붕괴되고 집의 일부가 강으로 떠내려가 거주지를 옮기는 등 환경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가 존재함.

2) 기후·환경 변화가 이주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

① 문헌조사

● [기후변화가 이주에 미치는 영향] 기온상승을 비롯한 각종 환경변화가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

나 환경변화의 종류에 따라, 송출국과 수용국의 농업의존도, 소득수준, 정치적 안정성 등에 따라 환경이주의 양상이 달라짐.

- 기온상승 또는 강수량 변동폭 증가는 농업 생산성 저하 등의 경로로 이주를 유발함.
 - 이러한 환경이주는 다른 요인으로 인한 이주와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우며, 이에 따라 환경이주가 노동시장 성과에 독립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.
- 송출국에서의 환경변화가 이주 의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더라도, 예산제약에 따라 실제로 시행되지 않는 이주가 존재할 수 있음.
 - 기후변화는 잠재이주자의 기대소득을 낮춰 이주비용을 감당할 역량을 감소시켜 실제 이주를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함.

● [이주가 수용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] 이민자 유입이 집중된 수용국의 산업과 고용 형태에서 임금이 하락하며 내국인의 일자리가 외국인에 의해 대체되는 양상을 보이지만, 수용국의 경제구조에 적합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지닌 이민자가 유입될 경우 긍정적 경제 효과가 증대되기도 함.

-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이주민이 노동시장에 유입될 경우 해당 직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도시에서 임금과 고용률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함.
- 그러나 이주가 수용국의 전체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결론이 지배적임.
 - 이주민이 국내인력과 보완관계를 이루는 산업 또는 업종에 배치된다면 생산력 증가 및 사업 확장을 전인하여 노동시장 조건을 개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.
 - 이주민 유입은 국내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며 생산 비용과 상품 가격을 안정시켜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영향도 미침.

● [기후변화가 이주를 경로로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] 기후변화가 이주를 경로로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만 이뤄짐.

- 소수의 문헌이 기후변화에 반응하여 노동력이 농업 부문에서 비농업으로 옮겨가는 현상을 포착하였으나, 해외 이주를 매개로 한 노동인력 재편은 주목을 받지 못함.
- 환경변화로 인한 이주가 경제적·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이주와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, 예산제약으로 인해 실현되지 않는 이주가 존재하기 때문에 환경이주의 배타적인 영향을 파악하기가 어려움.

② 실증분석

● [연구문제] 실증분석을 통해 기후 및 환경 변화가 국가간 이주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되, 잠재이주자가 직면한 예산제약의 문제를 고려하여 분석을 진행함.

- 기존 문헌에 따르면 잠재이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이주 여부 및 이주 형태가 달라짐.
 - 이주에 드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환경변화라는 배출 요인(push factor)이 있어도 실제 이주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.
- 예산제약에 의해 기후변화가 이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도 파악하기 위해 본 보고서는 수용국과 송출국의 정보를 모두 담은 양국간 이주 자료를 분석함.
 - 기후 및 환경 변화로 인해 이주의 유인이 발생하더라도 국외이주가 실현되기 어려운 조건이 존재함을 보이고, 이 조건에 따라 환경이주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논의함.

● [자료 및 방법론] 기후 및 환경 변화가 이주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본 보고서는 양국간 이주 자료를 활용한 중력모형 분석을 수행함.

- 종속변수로 Abel and Cohen(2019)이 구축한 양국간 이주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함.
 - 예산제약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선 송출국의 소득수준별 이주 양상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야 하는데, 양국간 이주 자료가 이러한 분석을 위해 가장 적합함.
 - 양국간 이주 자료로 1990년부터 2020년까지 200개 국가에서 이뤄진 상호 이주 유량(flow)을 5년 단위로 추정한 Abel and Cohen(2019)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함.
-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과 강수량 감소는 이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주요 독립변수로 포함함.
 - 세계은행 기후변화지식포털(Climate Change Knowledge Portal)에서 수집한 1901년부터 2010년 사이 국가별 연간 평균기온과 평균 강수량 자료를 활용하여 최근 10년 평균, 직전 100년, 50년, 20년간 기온 변화량, 그리고 최근 20년 변동폭(표준편차)을 계산함.
- 기온 또는 강수량의 점진적인 변화가 이주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에 패널 분석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중력모형을 활용한 횡단면 자료 분석을 수행함(아래 식 참고).

$$M_{ij} = a_0 + a_1 CC_i + a_2 CC_j + a_3 \log(GDP)_i + a_4 \log(GDP)_j + a_5 \log(POP)_i + a_6 \log(POP)_j + a_7 \log(DIST)_{ij} + X'\beta + \phi_i + v_i + \epsilon_i$$

- M_{ij} 는 2015~20년 사이 송출국 i 에서 수용국 j 로 이동한 이주민 수를 의미
- CC, GDP, POP, DIST는 각각 기후변화 관련 변수, 국민소득, 인구, 지리적 거리를 의미하며, 송출국과 수용국에 해당하는 각각의 독립변수가 이주에 미치는 영향을 구별해 보기 위해 별도로 포함함.
- X 는 주요 변수 외에 추가한 통제변인을 의미하며, 수용국과 송출국 간 경제적 격차, 개방도 차이, 행정력 차이, 문화적 차이, 실업률,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, 농업의존도 등이 포함됨.

- [분석결과] 송출국의 소득수준별로 환경이주 양상을 분석한 결과, 저소득국에서는 소득 감소로 인한 이주 저해효과가 있으며 중저소득 국가와 중고소득 국가에서만 환경변화가 이민 유출로 이어짐을 확인함.

- [표 1]의 열 (1) 저소득 국가를 비교대상으로 삼을 때 중저소득, 중고소득, 고소득 국가에서 기온 변화량이 이주에 미치는 영향의 양상이 달라졌는지 보여줌.

- 송출국이 저소득 국가일 경우 기온 변화량이 이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 제약에 의한 이주저해 효과를 보여줌.
- 중저소득 국가와 중고소득 국가에서는 저소득 국가와 비교하여 회귀계수의 크기 및 유의성이 더 크게 나타나, 기온 변화량이 이주를 증가시키는 강도가 중저소득 국가에 비해 더 커짐을 알 수 있음.
- 고소득 국가와의 상호작용항에 대한 회귀계수는 유의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, 예산 제약의 영향은 받지 않지만 이미 본국에서 높은 소득을 얻기 때문에 다른 국가로 이주할 유인이 떨어지는 특성을 보여줌.

표 1. 회귀분석 결과: 기온상승×소득분류 상호작용항과 양국간 이주 사이의 관계

종속변수: 양국간 이주민 수	(1)	(2)	(3)
기온변화량_송출국	-0.940** (0.393)	-0.901*** (0.344)	-0.435*** (0.123)
기온변화량× 중저소득국_송출국	0.404* (0.244)	0.299* (0.179)	0.074 (0.188)
기온변화량× 중고소득국_송출국	0.716** (0.354)	0.601*** (0.208)	0.371* (0.200)
기온변화량× 고소득국_송출국	0.246 (0.525)	0.152 (0.570)	0.061 (0.570)
기온변화량_수용국	-0.402 (0.353)	-0.652* (0.345)	-0.167 (0.272)
평균기온_송출국		0.013 (0.009)	0.001 (0.014)
평균기온_수용국		-0.033** (0.014)	-0.058*** (0.013)
기온변동폭_송출국			-1.634 (1.331)
기온변동폭_수용국			-2.551*** (0.385)
상수	12.912*** (4.335)	13.947*** (5.099)	15.928*** (5.537)
관측치	23780	23780	23780

주: 모든 회귀식에는 주요 통제변인, 국가 소득수준 고정효과, 대륙고정효과 포함, 괄호 안은 소득수준별 군집표준오차를 의미; * p<0.10, ** p<0.05, *** p<0.01.

자료: 장영욱 외(2022), p. 212.

- 이러한 열 (2)와 열 (3)에서 송출국 및 수용국의 평균기온과 기온 변동폭을 포함하였을 때에도 달라지지 않음.
 - 수용국의 높은 평균기온, 기온변화량 및 기온 변동폭이 이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후변화가 이주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줌.
 - 즉 잠재이주자가 이주를 결정한 다음 목적지를 정할 때는 기후·환경 조건이 우호적인 나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음.

3. 정책 제언

- [인도적 지원 확대] 환경 요인으로 인해 이주한 이주민들의 안전한 정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.
 - 이주민들은 신분의 불안정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으며, 기본권 보장을 위해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함.
 - 이주민들은 기본적으로 신분이 불안정하여 안정적인 직업을 구할 수 없으며, 정보와 재정 부족으로 질병 발생 시 적절한 치료를 제공받을 수 없음.
 - 국내외로의 추방 위협은 육체적·정신적 고갈로 이어짐.
 - 2022년 6월에는 모로코와 스페인의 자치도시 멜리야 사이의 국경에서 수십 명의 이주민·난민 신청자들이 국경 통과를 시도하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.
 - 본 연구에서 수행한 모로코 현지조사에서도 이민자들에 대한 정부당국의 강압적 조치와 이민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드러남.
 -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체계적인 이민자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.
 - 이주민의 체류와 이동, 출산과 양육, 교육과 진로를 위한 서류 작업을 돕고, 여자들과 아이들에게 식량과 주거지를 제공하며, 강제이송을 막기 위해 정부당국과 NGO의 협력이 필요
 - 이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찾는 일도 중요한 과제임.
 - 기존 문헌에서는 이주민을 도움이 필요한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내외부의 도전에 맞서 본인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주체로 묘사함.
 - 모로코의 이주민 지원단체 구성원 상당수가 스스로 이주민 신분을 가지고 있었음.
- [개발협력 강화] 이주를 원하는 모든 사람을 지원할 수 없으므로,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이민 요인을 없애는 것이 필요함.
 - 국가간 소득불균형 해소와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이 국경을 넘는 시도를 줄일 수 있음.
 - 현지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, 원 거주지의 상황이 나아진다면 상당수 이주민들이 귀환하기 원하며 애초에 본 거주지를 떠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큼.

- 모로코 탕헤르의 경우, UNHCR, 국제이주기구, 유럽집행위원회 등 여러 국제단체 및 정부기관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전체 이민자·난민의 10%에 불과함.
- 소득불균형, 분쟁, 재난, 기후변화 등 송출국에서의 이주 송출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개발협력 지원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음.
- 특히 본 보고서가 주목한 이주요인으로서 기후변화 관련, 기후변화의 강도 및 범위를 줄이기 위한 완화(mitigation) 정책과 더불어 이미 일어나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(adaptation)에 투자가 필요함.
 - 2022년 이집트에서 개최된 UNFCCC의 제27차 당사국 총회에서도 기후변화 적응이 핵심 의제로 채택되었으며, 기후취약인구 40억 명에 대한 적응 지원책을 2030년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함.
 - 회복탄력적이며 지속가능한 농업 확대, 식량 손실 방지, 수자원 접근성 증대, 관개시설 개선, 기후위기에 대응한 정주여건 마련 등이 포함됨.
 - 농업 부문에 대한 투자와 비농업 부문에 대한 고용 지원, 또는 공식·비공식 금융 접근성 강화를 통한 업종 전환 지원, 식량 원조, 신용 제공 프로그램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고려할 수 있음.
- [한국에 대한 시사점] 한국의 경우 현재 기후·환경 변화로 인한 이주 증가를 직접적으로 겪고 있지는 않으나, 앞으로 기후변화가 가속될 경우 우리나라가 주요 이주 목적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선제적인 예측과 이에 따른 수용전략을 정교화해나가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함.
 - 한국은 소득수준이 높고 기후조건이 양호하여 주요 이주 목적지가 될 가능성이 높음.
 - 본 보고서의 실증분석 결과 환경이주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중소득국에 우리나라로 오는 주요 이민 송출국이 다수 포함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함.
 - 또한 우리나라에서 저출생·고령화 등 인구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향후 이주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.
 - 제도적·사회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한 이민자 유입이 이뤄질 경우 사회경제적 혼란을 피할 수 없음.
 - 이민자 유입은 수용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나, 이민자가 집중된 산업과 고용 형태에서 내국인의 임금 하락 및 실업률 증가가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.
 - 아프리카 이민자 사례에서 관찰되듯이, 제도적·사회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민자 유입이 급증하면 이민자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국내에서 사회갈등의 요소로 작용함.
 - 따라서 이주민 유입 증가에 대비하여 외국인력 수요 및 공급 파악, 행정절차 정비, 사회경제적 여파 최소화를 위한 정책수단 마련, 수용전략 정교화 등의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.

- 이민자 확대에 대한 행정적·제도적·경제적·사회적 대비가 종합적으로 이뤄진 상태에서 이주민들을 받아들여야 이민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.
-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어떤 국가에서 어떤 사회경제적 특성을 가진 이주민이 유입될지 예측할 필요가 있음.
- 직업 전환을 통해 외국인-내국인 사이 보완관계가 증대될 수 있도록 이민자 선별과 배치 과정을 정비함으로써 이민자 수용의 부정적 여파를 최소화해야 함. **KIEP**



참고문헌

- 장영욱, 이승호, 송지혜, 김제국, 정민지. 2022. 『기후·환경 변화가 이주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』. 연구보고서 22-16. 대외경제정책연구원.
- Abel, G. J. and J. E. Cohen. 2019. “Bilateral International Migration Flow Estimates for 200 Countries.” *Scientific Data*, 6, 82.
- IOM. 2019. “Glossary on Migration.”
- _____. 2022. “World Migration Report – Chapter 9. Migration and the slow-onset impacts of climate change: Taking stock and taking action.”